

불교와 유아의 환경교육

황 옥 자

(동국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지구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그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불교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와 함께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공생하는 동질의 존재라고 본다. 또한 모든 사물은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곧 인간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의 환경에 대한 파괴나 오염의 심각성은 곧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의한 인간의 자연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이야말로 미래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최선의 방법이다. 유아는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고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나 가치관의 형성은 유아기에서부터 가꾸어 가야 할 교육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를 위한 환경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I. 머리말

동양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는다. 특히 불교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그 근원이나 본질에서 일원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무대로 생존하는 일체의 생명체를 인간과 평등한 존재로서 존중하고 경외롭게 여기는 것은 불교의 독특한 생명관이며 우주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無明에서 비롯된 인간의 無知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보존하며 더불어 공존하기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이고 문명인의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자연에 대해 학대를 가하여 극도로 오염시켜 왔다. 말하자면 자연을 향한 인간의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집단적 이기주의가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해 온 것이다.

모든 생물은 개체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적 상호관계(김준호, 1985)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즉 물리·화학적이며 비생물적인 환경과 식물·동물·미생물의 집합체인 생물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생태적 상호관계를 이루는 生態系(ecosystem)를 구성하고 있다(김준호: 12). 그러나 인간의 꺼질 줄 모르는 탐욕은 이러한 자연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파괴해 가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심각한 변화들 즉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나 오존층의 파괴 등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상호 공존관계를 배반한 대가이자 결과이다. 이를테면 인간이 생태계의 파괴에 의해서 일시적인 편익이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나 악영향은 인간에게 다시 되 돌아와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하여 이른바 생태학적인 입장의 부메랑 효과(ecological boomerang effect) (이명우 외 역, 1989)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릇된 자연관이나 생명관에 의한 삶의 자세나 태도(因)가 결국은 인간에게 돌려져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果)를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심각해져 가는 자연의 생태계 문제는 불교의 인과론적 논리를 현상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는 “하나 밖에 없는 지구”라는 제목으로 지구의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채택된 환경선언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자연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환경은 다함께 인간의 복지, 기본 인권, 나아가 생존권 그 자체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인간환경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지상의 목표이다”라는 내용이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해 시각을 확대시키고 정책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국가간, 인종간, 종교간의 차별이나 이익을 떠나서 세계적인 공동과제로 수용되어 지구촌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을 통한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관련한 환경교육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금세기 교육에서 필수 불가결한 영역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교육의 출발점은 유아기에서부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조기의 환경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어릴 때 부터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생활습관이 형성되어야만 어른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한다는 관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한 인간과 자연은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불교적 생명관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요소가 될 수 있다. 유아기에서부터 자연과 접촉하고, 호흡하며, 상호작용하면서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연을 親和的인 관점에서 보고 느끼며 이해하여 자연과의 공유된 삶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의 기회제공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불교에는 자연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불교적인 시각에서 유아의 환경교육을 고찰하거나 유아와 자연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의 환경문제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유아기의 발달 수준과 능력에 알맞는 환경인식과 태도형성의 방향을 모색한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불교의 자연관

1. 불교의 자연개념

自然이란 용어의 辭典的인 의미는 사람에 의해 형태나 성질 등에 있어서 변하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지각하는 자연이란 이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온갖 물질이 다 포함된다. 말하자면 인간이 생존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주와 그 속에 존재하는 일체의 만물이 곧 자연인 것이다(박선영, 1981: 108).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근대화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자

연을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강력하고 초인적인 능력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연을 畏敬心을 가지고 숭배하였으며 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가깝게 인식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방법을 추구해 왔다. 종교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자연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연에 관한 이해가 매우 논리적이면서 또한 사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불교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緣起論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리하여 자연을 모든 물질(色)과 비물질의 특성(自然)이 그 특성에 따라 스스로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것(조용길, 1988: 54)이라고 보았다. 물질이 형성되어 다시 흩어지고 흩어진 것이 다시 모여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현상으로 본 것이다. 오늘날 자연은 일반적으로 문화나 문명과는 대조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연이 非人爲的으로 스스로 형성되고 무너져 가는 것이라고 할 때, 문화나 문명은 인위적으로 혹은 인간의 有目的的인 차원에서 발생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나 문명이 인간의 두뇌에 의해 개발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자연은 본래 인간에 의해 정복되거나 인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수용하여 상호 공존하면서 共生하는 존재이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형태를 가진 모든 자연의 사물들 가운데 물질의 세계는 地, 水, 火, 風의 四大要素로 나뉘어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이들의 인연에 따른 화합과 분리에 의해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다. 이와같이 물질의 형태가 因緣의 和合 즉, 緣起의 法則에 의해 발생되고 또한 흩어지며 끝없이 변화를 거듭한다는 불교의 자연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상호 의존관계에서의 임시적인 존재이다. 다시말해서 그 어떤 사물도 영원한 실체로서의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한마디로 無實體이다(박선영, 1981: 111).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자연과 이 자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명체의 현상적 영원성을 부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간의 공유된 존재 방식이나 상호보완적 관계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자연관에서는 사상은 우주 자연을 인간과 동일시하고 인간과 상호 보완하는 평등의 관계, 공생의 관계로 본다. 그리하여 대승불교에서는 山川草木까지도 모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을 가지고 있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草木 成佛性”(大乘玄論3: 40a)이 나오는가 하면, 국토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

서의 부처 그 자체(法身佛)의 표현이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우주 전체가 숭고한 생명현상으로 설명되고 확신되기에 이른다(박선영, 1995: 112).

한편, 서양의 教育思想史에 있어서 자연의 문제에 주목한 사람들 가운데는 루소(Rousseau, 1712-1778)가 있다. 그는 “인간도 본질적으로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은 우주만물의 근원이면서 본질이다”(정병희 역, 1976) 라는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루소가 의미하는 자연은 인간 본연의 내적 자연성과 물리적 세계의 외적 자연을 다 같이 포함하는 자연사상을 전제하고 있다(황옥자, 1993: 303).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자연은 인간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수호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믿음은 이제 자연을 인간이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상보적인 입장의 현대적 자연관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2. 불교에서 보는 인간과 자연

역사적으로 보아 서양에서는 9세기 전까지, 그리고 동양에서는 근대 이전까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畏敬心이 매우 커서 자연을 지배한다거나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일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11세기 부터 13세기에 걸친 중세기 말기에는 유럽 각지에서 대규모 개간운동이 전개되었다. 자연에 대한 유럽인의 전면적인 도전이며 파괴행위가 시작되었다. 개척자들은 이를 두고 文明의 도래라고 이름하였다(김준호, 1985).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 문화가 유럽에 깊이 퍼져 있어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연에 대한 중세기의 사고는 神이 모든 자연물의 창조자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자연은 정복하여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연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관은 인간의 정복욕과 끝없는 욕구, 즉 탐욕을 만족시켜 주는 댕가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문명의 이익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는 생태학적 위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緣起觀에서 보면, 즉 우주만법은 모두가 예외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만남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應報도 받게 되는 것이 自然的 理致요 順理라고 할 수 있다.

釋尊은 일찍이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 현상으로 파악했다(박선영, 1995: 109). 인간과 자연을 연기론적 입장에서 통찰한 것이다. 원래 석존의 연기법에 따르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개체나 이 개체가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환경이나 모두 영원한 실체는 아니며, 이들간의 구별 자체도 또한 부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다르면서 같은 하나가 되고 같은 하나이면서 서로 다르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나 동물은 산천초목의 국토와 서로 다르면서 같은 하나(박선영, 1995: 111-112)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萬有一體說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다양한 인연의 고리 또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연기의 법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며 해치지 않겠다는 不殺生은 불교의 五戒 가운데 첫번째 계율인 것이다(雜阿含經 권33: 236b-c). 이는 불교의 크고 넓은 의미의 생명사상에서의 윤리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인연에 따라 서로 생기고 사라져 가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강요에 의해 억압되고 정복되며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주적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인연을 따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을 인간의 정복대상으로 짓밟거나 파멸시켜서는 안된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이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 또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자연의 생명은 곧 인간의 생명이며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연은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인간들에 의해서 오염되고 파괴되어 왔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제 세계는 자연의 환경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切感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으나 자연을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결과라 할 것이다.

III. 환경오염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유아를 위한 환경교육

1. 자연환경과 유아

“자연이 인간을 교육한다” 라고 언급한 프뢰벨(Fröbel, 1973)을 비롯하여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은 자연을 찬양하고 어린이가 자연과 더불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 때에만 원만한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은 자연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영원한 법칙에 의해 인간을 교육하며 인간됨의 길로 안내한다.

오늘날 도시의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연과의 접촉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일부러 전원에 가야만 자연을 느낄 수 있다. 문명화된 도시에 비해 전원은 자연적 삶과 평화, 순진무구함과 순박한 미덕이 여전히 남아 있다(Williams, 1975: 59). 발달된 문화와 문명의利器에 인간이 노출되면 될 수록 자연은 더욱 소중하고 가치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Thomas, 1983: 243)는 말하기를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도시가 문명의 상징이고 전원은 무지와 원시의 상징이었으나 1800년대 이전시기부터는 전원이 도시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간생활의 발전과 진보라는 역사적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흐름이요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간의 복지증진이요 경제적 성장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관념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진정한 경제성장은 자연의 가치가 전제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와 고이더(Lowe and Goyder, 1983: 25)는 인간의 명백한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생명체의 생존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지속한다는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도전임에 틀림 없다.

특히 인간발달의 초기에 있는 유아가 도시의 공해와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질서가 살아 있고 생태적 상호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자연과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유아의 몸과 마음은 자연환경을 무대로 성장해 간다. 산과 들과 바닷가를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사이에 어린이는 자연으로 부터 많은 진리를 배운다.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배우며,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까닭을 터득해 간다. 그리고 자연은 이러한 것을 이론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 자체로서 보여주고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유아는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인격을 다져 나갈 수 있다.

첫째, 유아는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배운다(Rousseau: 1974).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해 만든 어떠한 인위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 천연적인 것 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작품중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 받는 것은 곧 자연을 모방한 것이며, 자연에 가장 가까운 형상을 갖는 것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깝고 자연과 유사한 것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한다. 자연의 계곡을 타고 흐르는 폭포, 자연의 숲,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가지 동식물과 같은 천연의 환경이나 생태계는 마치 인간의 신체 내부구조를 연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 자연의 생태계는 혈관을 통해 각종 영양분을 공급 받아 세포가 살아가는 이치와 다를 것이 없다. 인간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질성 때문이다.

둘째, 유아는 자연으로부터 정직을 배운다. 자연은 현재의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준다(Rousseau: 1974). 잘 보이기 위해 꾸미거나 덧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나타내준다. 예컨대 물은 無味, 無臭, 無色을 그 본질로 하며 이것은 영원한 물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물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리면 물은 빨갛게 변하고, 파란 물감을 혼합하면 물은 파랗게 변한다. 즉 물은 첨가된 어떤 물질에도 정직하게 반응해주며 加減의 거짓없이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현상을 보이는 것은 자연이 오염되고 지구가 위험 수준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징후인 것이다.

셋째, 유아는 자연으로부터 질서와 규칙을 배운다. 자연에는 자연적인 질서와 법칙이 있으며(Fröbel, 1973: 156), 만물은 이 자연계의 법칙과 질서에 순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태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인한 밤과 낮, 사계절이 명확하다. 불교의 초기경전에 속하는 <증일아함경 제8권 안반품>을 보면 “해와 달이 때를 맞추지 않으면 곧 절후가 없게 될 것이요, 절후가 없게 되면 ……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지 않을 것이니 그 때에는 곡식이 땅에 있어도 자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나 날짐승이나 길벌레들은 형색이 변하고 수명이 매우 짧아질 것이다”(증일아함경: 156)라 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곧 생존의 근원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주만물의 질서에 따라 인간은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유아가 해가 뜨는 시각에 맞추어 일어나고 활동하며, 해가 지는 시각에 맞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일은 모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습득된 생활의 질서들이다.

넷째, 유아는 자연으로부터 관용을 배운다. 자연은 일체를 수용하고 너그럽게 감싸안는 힘이 있다. 인간이 자연을 향해 저지른 어떠한 파괴나 오염도 자연은 반박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흡수한다. 심지어는 생활을 통해 배출된 각종 오염물조차 대기와 물과 토양에 흡수되면 포근하게 감싸여져 용해된다. 결코 자연은 만물에 대항하지 않고 동화시키며 순응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거짓없이 보여주므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한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할 때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자연의 관용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가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 부터 자연과 접촉하고 親和를 유지하면서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유아는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운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가리켜 지식보다는 창의성 즉 지혜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사실 인간의 삶은 지혜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혜란 기억하고 배움으로써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김재만, 1984: 107)을 통해 터득하고 깨달아 가는 삶의 자세이며 방법이다. 따라서 지혜에는 정답이 없으며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언제나 함유한다. 자연은 바로 지혜의 원천이며 근원지이다. 유아는 자연 속에 내재한 질서와 법칙을 통해 다양한 지혜의 생각들을 자극 받고 유추해 낼 수 있다. 예컨대 계곡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데는 수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계곡의 물은 결코 중단이나 포기하는 일이 없이 큰 바위나 굽어진 골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러한 사실에서 인간이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의 예이다.

이와 같이 유아는 인격의 중요한 속성을 자연을 통해 배우고 키워나간다. 유아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데는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의해 무언의 교육을 받는 것은 인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과는 또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이다. 즉 자연은 이론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고 터득하며 예민한 관찰력으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감각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모든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환경오염과 유아의 환경교육

환경교육은 인간이 자연환경과 인공적인 환경을 함께 다루는 통합과정이다(엄기영, 1993: 16). 다시 말해서 자연상태인 자연환경과 인간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위적인 생활환경을 함께 다룬다. 오늘날 환경교육은 이들 환경의 보존과 오염이라는 두가지 사실을 동시에 인식하고 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염(pollution)이라는 단어는 “더럽게 하는 것”, “불결하게 하는 것”, “남용하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1965년 미국 대통령의 과학담당 고문단인 환경오염 분과위원회(Environmental Pollution Panel)에 의해서 채택된 “우리 환경의 질적 회복(Restoring the Quality of our Environment)”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린 환경오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준호, 1985: 249).

환경오염이란 인간 활동의 부산물로서 에너지 양상, 방사선 수준, 화학 및 물리적 조성 그리고 생물의 태도 등의 변화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우리 환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고 水分이나 농업, 기타 생물학적 산물을 통해서, 인간이 소유하는 재산을 통해서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다.

자연환경의 오염은 인간 활동의 부산물에 의한다.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새롭고 편리한 상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고 사용하여 버리는 순환에 가세하게 된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어갈 수록 환경오염의 물질은 더욱 증가하기 마련이다. 인간의 무지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순환은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ESA)*

*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 : 자연의 풍경기준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조건이 해당하는 특별한 영역을 말한다. 이를테면 끊임없이 다시 채워지는 지하수, 강의 상류, 희귀식물, 야생생물, 지형, 생명의 생태학적 기능등의 특징을 포함하는 천연 그대로의 풍경을 의미한다.

은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Eagles, 1984). 이러한 지역은 본래의 자연 그대로의 풍경(natural landscapes)을 지니고 있어 생태계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천연환경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오염된 자연환경보다는 안전하고 상쾌한 생활공간을 희망하고 추구한다. 비록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 파괴한 자연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일은 거부한다.

대기, 해안, 흙과 같은 환경자원은 모든 인간의 공동재산이다(Eagles, 1984: 25). 그런데도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영리나 욕구를 위해서 이들을 파괴하거나 인간 상호간에 피해를 주는 일은 많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재산인 대기, 물, 토양을 깨끗하고 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자연환경 특히 물, 대기, 토양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원인과 그 대책을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 : 인간은 신체의 약 2/3가량이 체액(body fluid)(김정진, 1982) 즉 수분으로 되어 있다. 생리학적으로 보아 성인의 신체중 총 체액량은 약 73%이고, 아기는 그보다 많은 약 82%가 체액(김정진, 1982: 118)이라고 한다. 이중 일정량의 체액만 부족하여도 탈수현상을 일으켜 생명은 위협을 받게 된다.

인간의 체액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육체를 이루고 있는 地·水·火·風의 四大要素중 “水”에 해당한다. 이것은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과 그 성분이 같다. 그리하여 水는 육체의

소멸과 함께 그 근원인 자연의 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이 물에 관한 불교적 관점이다. 물(H₂O)은 인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에서도 72%를 차지하고 있어, 인간과 자연의 기본적인 주요성분은 물이란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를 두고 고대 철학자 탈레스(Thales)는 “물이 사물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이광래, 1985: 12).

물의 사용은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문화의 발달을 이루어가는 만큼 증가되기 마련이고, 그 용도도 다양해진다. 그리하여 사용한 量 만큼의 물이 오염되어져 이번에는 생활하수로 자연 속에 배출되고 있다. 물의 순환은 마치 인체 내의 동맥과 정맥의 순환작용처럼 자연과 인간을 통해 무한히 되풀이 된다. 이렇듯 물의 오염, 즉 수질오염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구조에 따라 물에서 살아가는 어패류 및 식물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이 식물과 어패류를 食物로 하는 인간과

모든 생물을 오염시켜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협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기회를 통해서 물의 고마움과 가치, 물과 인간, 물과 일체 생물에 관한 깊은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물은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제중 하나이다. 그 만큼 물은 유아가 주변에서 쉽고도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체발달을 위한 자극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적인 자료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가 본래부터 물을 좋아한다는 근원적인 이유를 들수 있다. 그것은 태아기에서부터 양수라는 물속에서 생명을 시작하였으며, 인간의 신체구조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생리적 근거에도 연유한다.

따라서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환경교육은 유아들에게 즐겁고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물고기는 어떤 물에서 가장 잘 살수 있을까” 라는 주제 아래 깨끗하고 맑은 물, 색소가 섞인 물, 그리고 중성세제나 화공약품 또는 샴푸가 각각 첨가된 다양한 종류의 물을 제시하여 유아들이 궁리하고 선택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와 결과를 서로 토의하도록 한 후, 이를 실험으로 연결하여 유아 스스로가 그 이유를 발견하도록 한다. 이 때 물에 관련한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안내한다면 유아는 재미 있고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

2) 대기 : 우리가 흔히 공기라고 부르는 大氣는 지구중력에 의하여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이다. 불교에서는 인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사대요소 중 “風”이 자연환경의 대기와 같은 성분일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소멸되면 인체 내의 風의 요소는 자연 속의 대기로 되돌아 간다는, 자연과 인간의 一體說이 나타난다.

대기는 여러가지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일종의 혼합물로서, 주로 질소(N_2) 약 78%, 산소(O_2) 약 21%, 아르곤(Ar) 약 0.9%, 이산화탄소(CO_2) 약 0.03%, 그리고 그 나머지는 미량의 기체(네온, 오존 등)들로 구성되어 있다(동아원색 세계 대백과 사전: 45). 지구의 대기권은 이들 기체의 조성비율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세계인류는 지구의 기온상승과 오존층의 파괴현상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지구의 대기권이 오염되고 있

으며,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이나 절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를테면 가정의 난방연료, 발전소, 산업체,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에서 방출되는 아황산가스(SO₂)나 매연 또는 粉塵 등의 오염물질은 자연상태의 대기권을 오염시키고 오존치를 높이는데 작용하고 있다.

地上의 오존치 상승은 오늘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다루기 힘든 건강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기침,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각종 호흡기 질환은 아황산가스(SO₂)와 같은 물질에 의해 오염된 대기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매연이나 분진은 폐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게까지 중금속 물질을 옮겨 놓을 수 있다(김범철, 1990: 167). 그리고 연령이 낮은 어린이일 수록 그 발생 빈도나 피해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루소(Rousseau)는 에밀에서 “공기는 인생 초기의 체질에 영향을 미친다”(Rousseau, 1974)고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대기의 상태가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의 오염과 이로 인한 지구의 비정상적인 변화들은 인류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다. 때문에 오늘날 대기의 오염문제는 세계는 탈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어린시기일 수록 강하고 그 영향도 오래 간다. 이를테면 유아는 공기에 관련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대기의 고마움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오염된 공기의 성분과 특성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이 유지하려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리고 유아는 여러 조건이나 상황에서의 호흡이 서로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비교하여 토의하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맑고 순수한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숲속이나 산 위에서 호흡하기,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에서 호흡하기, 지하도에서 호흡하기, 담배연기가 가득한 실내에서 호흡하기, 백화점과 같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의 호흡하기 등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유아는 공기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감이나 실험을 통해 공기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공기와 관련한 주제들은 직·간접으로 많이 다루어

지고 있다. 단지 유아가 공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실체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 기능이나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기 쉽다. 때문에 대기오염에 관련한 환경교육은 “지금”, “여기서”부터라는 현 상황을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양 :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의 토양 즉 흙은 인간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地·水·火·風의 四大要素 가운데 “地”와 일치한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가 소멸되면 地의 성분은 그 근원인 흙으로 돌아가 자연물질로 귀속한다는 것이 토양에 관한 불교의 연기론적 관점이다.

인간생활이 문명화·산업화 함에 따라 토양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형질의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명 초기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왔다. 인류 역사상 최초 토양의 변질은 농경문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인류가 토착 삼림의 식생을 농경과 목축으로 대체하면서부터 토양 내의 염기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깊은 토양층으로 부터 염기를 끌어올릴 수 없게 된 토양 표면은 비옥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Drimbleby, 1974). 이와 더불어 토양 특성의 중요한 변화인 토양 산성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게 되었다.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의 화학적인 변화들이 모두 농업과 관련한 인간의 인위적인 힘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를 증가시키고 토양의 산성화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줄이기 위해 거름·잔디·낙엽퇴비나 모래를 부가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기법들이 여러나라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하여 비옥해진 토양을 Plaggon토양이라고 한다(Pope, 1970).

이와 같이 토양 오염에 대한 전통적인 우려는 단지 농업에 관련한 화학비료의 사용에 의한 토양구조의 변화나 토양의 침식과 그 결과로서의 수질을 오염(손일, 최정권, 1987: 118)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토양오염은 단순히 농업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量的인 면이나 정도에서 전통적인 원인을 훨씬 뛰어 넘는 복합적인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나 양상이 매우 빠르고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쓰레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는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소비”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인간이 쓰고 버린 쓰레기의 양은 매우 방대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하루에 2.2kg의 쓰레기를 배출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이상돈, 1993: 186)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뿐만 아니다. 이들 생활 쓰레기는 산과 하천, 농촌

의 논과 밭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살포되는 화학 살충제나 농약은 토양의 산성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오염된 논과 밭에서 자라난 식물·채소나 과일은 그 자체부터 오염되어져서 이를 섭취하는 유아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것은 자연이 오염되고 병들면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동일한 인간의 육신도 역시 오염되고 병들게 된다는 우주의 자연법칙에 따른 것이다. 생태학(ecology)의 입장으로 본다면 인간은 생물계 즉 자연환경 속에서 상호공생하는 존재로서 생태계라고 하는 먹이연쇄(Food chain)의 연결(김준호, 1985)에 공동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다. 토양은 인간 삶의 모태이며 생명의 발생원이다. 따라서 토양의 오염은 그 토양에 의지하여 사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유아기에 토양보존을 위한 환경교육은 흙의 소중함은 물론 흙과 인간 그리고 동식물과의 관계를 알게 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유아는 깨끗하고 순수한 흙의 보존이 왜 필요하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 어떻게 연결하여 습관화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존을 위한 바른 의식과 태도를 키워갈 수가 있다.

예컨대 좋은 흙과 오염된 흙에 각각 씨앗을 심어 그 씨앗의 성장하는 모습을 비교 관찰함으로써 유아는 흙의 기능, 성분, 가치 등을 인식할 수가 있다. 특히 오염된 흙은 어떤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과학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해 봄으로써 관심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비닐, 깡통 그리고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등은 흙을 오염시키고 씨앗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유아의 직접 경험에 의해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시킨다. 그 중에서도 유아의 바른 환경의식을 발달시키는데 있어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태도가 가장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찰에서는 매일 새벽 木魚, 雲板, 法鼓와 같은 법구를 쳐서 물, 대기, 토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체 생명체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안심시켜 주는 의식을 행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 일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평등하게 관조하는 불교적 생명 사상에서 비롯한 뜻 깊은 의식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 생명체의 근원지이며 삶의 터전이기도 한, 이들 자연환경이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어

서는 안된다는 세계관도 담겨 있어 오늘의 환경교육에 시사하는 바 크다.

IV. 맺 는 말

환경은 인간과 모든 생물체의 생존을 위한 기본 전제이다. 그 중에서도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전한 토양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 요소들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에서 나서, 자연과 더불어 살다가 자연으로 귀의한다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육체가 地·水·火·風이라는 사대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교설한 불타의 생명관을 통해 더욱명확해 진다.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同質의 상호의존적인 연기론적 관계에 있다. 인간과 자연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면서 평등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류는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대우주의 진리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인간 우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해 왔다. 오늘날의 환경파괴, 환경오염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릇된 자연관에서 유래된 것이다.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고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그 피해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더 이상의 환경오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환경파괴나 환경오염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無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환경의 파괴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및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유아기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무한한 관심과 호기심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부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느끼고 알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단 유아기에 형성된 자연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는 성장한 후 생활습관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기의 환경교육은 단순히 이론을 암기시키거나 일정한 기술의 습득에만 목적을 둘 것은

아니다. 계속적인 생활의 과정으로써 반복되고 습관화, 체질화를 이루어 가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물, 공기, 흙과 같은 자연환경은 유아의 생활 속에 항상 공존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유아의 일상적인 놀이감으로 가장 흥미를 일으킬 뿐 아니라 유아기의 환경교육을 위해서도 훌륭한 교재 교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를테면 물에 관련한 수질오염, 공기에 관련한 대기오염, 흙에 관련한 토양오염의 내용들은 유아기의 발달이나 이해수준에 따라 여러 활동영역에서 다양한 방법과 경험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의 마음 속에 자연을 사랑하고 일체의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조화롭게 생존해가는 경험을 가능한 많이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유아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일이 유아 환경교육의 기본임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大正藏 2, 雜阿含經 권 33, 236b-c.

大正藏 45, 大乘玄論 권 3, 40a.

한글 대장경, 증일아함경(1989). 서울: 동국역경원.

한글 대장경 화엄경(1989). 서울: 동국역경원.

김범철, 이승환(1990). 지구 환경 보고서, 서울: 따님.

김재만(1984). 교육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김정진 (1982). 생리학. 서울: 교문사.

김준호 (1985). 생태학 개론. 서울: 교문사.

박선영(1981).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동화출판공사.

_____(1995). 불교와 평화교육. 평화·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엄기영(1993). 유아교육에서의 환경교육. *유아교육*, 16. 한국 유아교육협회.
- 이광래(1985). 서양철학사. 서울: 종로서적.
- 이명우 외(1989). 현대환경론. 서울: 한길사.
- 이상돈(1993). 환경위기와 리우회의. 서울: 대학출판사.
- 손일, 최정권(1987). 인간과 자연환경. 서울: 신학사.
- 정병희(1976). 에밀. 서울: 동서문화사.
- 조용길(1988). 불교의 자연관. 불교에서 본 인생과 세계. 서울: 흥법원.
- 허영자(1993). 유치원교육에서 환경교육의 실상. 유아교육. 한국유아교육협회.
- 황옥자(1993). 에밀에 나타난 Rousseau의 자연주의 사상과 유아기 교육에 관한 고찰.
교육철학, 제11집. 한국교육철학회.
- Drimbleby, G.W.(1974). The legacy of prehistoric man. In Warren, A. and Goldsmith, F. B., editor. *Conservation in practice*. London: Wiley, 297.
- Eagles, Paul. F. J.(1984).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New York: Longman Group Inc..
- Fröbel, Friedrich(1973). *Die Menschener Ziehung, Die Erziehungs, Unterrichts und Lehrkunst*. Hrg. Von Hermann Holstein. Bochum.
- Pope, J. C.(1970). *Plaggen soil in the Netherlands*. *Geoderma* 4, 229.
- Thomas, K.(1983). *Man and the Natural world : Changing Attitude in England 1500-1800*. London: Alen Lane.
- Williams, R.(1975). *The country and city*. St. Albans: Paladin.